

'모악의 녹음, 음악으로 물들이다!'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6월 13~14일 개최

케이윌 · 브브걸 등 공연 · 체험 · 먹거리 풍성

김제시가 오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모악산 금산사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최종 라인업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모악의 녹음, 음악으로 물들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화려한 음악의 향연과 단순한 무대 공연을 넘어 휴식과 감성을 제공하는 힐링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인 6월 13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 보컬리스트 '케이윌'과 감성적인 보컬 그룹 '가비엔제이', 뮤즈그레인, 이종민 등이 출연해 모악산을 감성적인 산물로 채울 예정이다. 이어 14일에는 '브브걸'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제니스'의 트렌디한 무대가 펼쳐지며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다채로

운 장르와 개성 있는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축제의 마지막까지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먹거리 존, △어린이를 위한 마술·버블쇼, △모악산 황토길 걷기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양유미 홍보축제실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연과 체험을 한층 강화해 준비했다"며, "최종 라인업 공개와 함께 축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포스터

'만복사저포기' 서사기반 미션 추격 레이스

남원시, 30일 '뛰어보자 만복한마당 런닝맨 환생의 문을 열어라' 체험 행사 개최

남원시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교가 주관하는 생생국가유산사업 '뛰어보자 만복한마당 런닝맨 환생의 문을 열어라' 체험 행사가 오는 30일 만복사지(남원시 왕정동)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만복사지를 배경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즐기는 오감상상형 유산 체험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놀이와 교육을 결합하여, 참가자들이 국가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고 감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고전 소설 '만복사저포기'의 서사를 현대적인 추격전(런닝맨)과 결합, 참가자들은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만복사지 곳곳을 누비며 만복사지 보물 5종과 연계된 미션을 해결하는 액션 레이스를 펼치게 되며, 행사는 안전하고 원활



한 진행을 위해 회당 30명의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편, 체험 행사는 이번 첫 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회차의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유산팀(063-620-6838) 또는 주관 단체인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교'(063-625-952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다움관 기획전시 '나의 마을 [말:들]마을을 그리다, 삶을 기록하다'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5월 22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남원다움관에서 기획전시 '나의 마을 [말:들]마을을 그리다, 삶을 기록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억과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기획, 남원다움관과 시민기록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시민기록가들이 함께 대강면 유전마을, 주생면 영춘마을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곁에 앉아 지나온 삶과 마을의 기억을 담았다.

채록된 진솔한 이야기들은 남원다움관의 체

험 프로그램인 '오마주 나의 남편'과 연계되어 따뜻한 색채의 그림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전시의 주인공인 이 그림들은 남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3명의 청년 여성 작가들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켜켜이 쌓인 어르신들의 시간과 사연이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재해석되어, 단절되기 쉬운 세대 간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준 것으로, 이번 전시는 남원다움관(검정1길 14)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미술관은 지난 22일 두 번째 특별 기획전 '당신이 보지 못한 유럽 명화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전북은행미술관, 유럽 명화전 개막

8월 23일까지 사갈·피카소 등 거장 12인 작품 22점 전시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전북은행미술관이 유럽 근대미술 거장들의 진품을 선보이는 특별 기획전을 열었다.

전북은행미술관은 지난 22일 두 번째 특별 기획전 '당신이 보지 못한 유럽 명화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군산 JB 문화공간 내 미술관에서 오는 8월 23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마르크 샤갈,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살바도르 달리 등 20세기 유럽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12인의 진품 작품 22점을 공개하며, 유럽 근대미술의 흐름과 현대미술의 태동을 조망하도록 구성됐다.

전시에는 야수파,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미술 사조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으며, 당시 파리 중심의 예술적

실험정신과 시대정신을 관람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 5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특히 군산을 대표하는 조각가 강용면을 비롯한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 전시 방향과 미술관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전북은행미술관은 이번 논의를 향후 전시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이다. 단체 관람 해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개인 관람객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오상근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29일 해설이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해설과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인 '클래식 프리즈마'의 아홉 번째 공연인 '조용히 빛나는'을 선보인다.

'클래식 프리즈마' 공연은 프리즈를 통해 다양한 빛의 아름다움을 보듯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다채로운 악기의 색채를 경험하는 공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연에서는 △트럼페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e단조' △쇼스타코비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바체비치 '바이올린 4중주' △브람스 '호른,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3중주'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나무껍질 누리집 또는 전화(1522-



6278)로 예매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어진박물관, 전통놀이 체험 운영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오는 27일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여름의 시작'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입하(立夏)에 대해 알아보고, 윷놀이와 나무팽이를 만들기, 투호놀이, 고무신 던지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윷놀이와 나무팽이 만들기 체험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 지하 1층 열린마당에서 진행되며, 투호와 고무신 던지기 등은 박물관 지하 1층 야외마당에서 진행된다.

한편 어진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운영하며,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는 경기전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권희성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